

BCAA까지 함유하고 있다. 또한 벌꿀을 사용해 뒷맛이 달콤하고 산뜻하지만, 칼로리는 17.6Kcal (100ml 기준)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를 런칭하며 선보인 광고에는 공효진을 모델 기용, 공효진의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통해 글로벌 이온음료 아쿠아리우스의 브랜드 이미지에 잘 살리고 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아쿠아리우스’는 이미 일본 등 아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품이다. 까다로운 입맛과 스마트한 소비를 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 새 광고 모델 엄태웅'



국내 음료시장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칠성사이다가 새 광고 모델로 ‘국민 순둥이’로 불리는 배우 엄태웅을

기용하였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소설가 김주영 씨가 백두산 천지에서 모델을 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박2일’에서 보여준 엄태웅의 순수 청년의 이미지가 칠성사이다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모델로 발탁했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배우 엄태웅과 함께 대한민국의 맑고 깨끗함을 보여주기 위해 경남 통영의 무인도인 소지도를 배경으로 광고를 찍었다. 소지도의 때문지 않은 자연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204호 팔색조, 희귀야생화 초종용, 그리고 바다게의 모습을 담았다.

[LG전자] 트롬세탁기 새모델 장고부부



LG전자는 장동건·고소영 부부를 LG전자 트롬세탁기의 새모델로 발탁, 8월부터 방송되는 광고를 통해 트롬세탁기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광고에서는 LG전자 트롬세탁기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세련된 스타일로 표현할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올해 상반기 트롬 스타일러 모델로 동반 출연하며 제품 인지도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하며, “이런 점에서 ‘세계 1등 프리미엄 이미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 트롬세탁기의 새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노션 월드와이드, 제1회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이노션 월드와이드 간담회 사장은 지난 7월 8일 이노션의 성장에 함께 해준 협력업체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협력업체 대표 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1회 협력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안 사장은 이날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가며 상생협력관계를 돈독하게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품질/투명/윤리경영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광고회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지투알, 일리노이 해외연수 과정 개설

LG그룹 계열 광고마케팅 지주회사인 지투알(GIIR)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과 다른 앞선 생각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해 ‘DDGM(Discover the Difference in global marketing) 해외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지투알 자회사 HS애드 및 엘베스트 임직원 14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첫 연수가 진행되며, 연수과정은 일리노이 대학 교수진의 강의로 이뤄지는 Digital Advertising Strategies, Social Media and Mobile Advertising 등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케이스 사례 습득과 시카고의 글로벌 에이전시 투어로 구성된다. 해외연수 과정 개설은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최신 트렌드를 익혀,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컴, 전사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선포

지난 6월 30일,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장일형 대표이사(사장)를 비롯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한컴의 전사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컴은 고객에게 Top Quality의 Creative Solution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 ‘Excellence in Creative Brand Communication’과, 비전 달성을 위한 슬로건 ‘Creative People, Creative